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향상과 업무효율을 높을 수 있는 정보화 빌딩으로서 새로운 청사문화를 제시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 신청사 건립이 곧 착수된다.

최대의 서비스산업이 되어야 할 시민 행정업무가 오랫동안 적지 않은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물론 업무처리의 불만족스러움이나 습관화된 시민들의 선입견 또는 대민접견의 불친절 등이 주된 이유

이기도 하나, 불편한 시설과 관료주의적 건물 자체의 하드웨어와 주변환경에도 큰 원인이 있다. 우선 도시적 맥락에서 볼 때 기존 청사들은 도시 패턴이나 주변 환경을 무시하였으며, 단순하고 획일적이며 중압감을 주는 형태 뿐만아니라 주변과 부조화를 이루고 있어 시민들에게 거리감을 주며, 접근성에 있어서도 많은 물리적 불편을 주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청사 건축물들 중 광화문 정부청사, 과천정부청사, 인천직할시청

사의 예를 들면 우선 큰 이유없이 둘러쳐진 담장과 경비실이 이용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며, 건물 전면은 주차장으로 막혀 있으며 주로 후문으로 시민들을 출입하도록 유도하고, 정문은 고위직 또는 특수층만을 위한 뜻으로 되어 있다. 저층부는 시민의 휴식 또는 접견의 장소가 전무하니 의례히 용무대상자를 찾아가 책상머리에서 서성일 수밖에 없다. 건물의 수직 동선은 중심코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출입구 및 통로는 길고 어두운데 획일적인 사무실 출입구를 통하여 들어가면 사무실 내부의 환경이 손님을 맞을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가

대전 광역시 신청사

Taejeon New City Hall Project

李寅浩 / (주) 정원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In-Ho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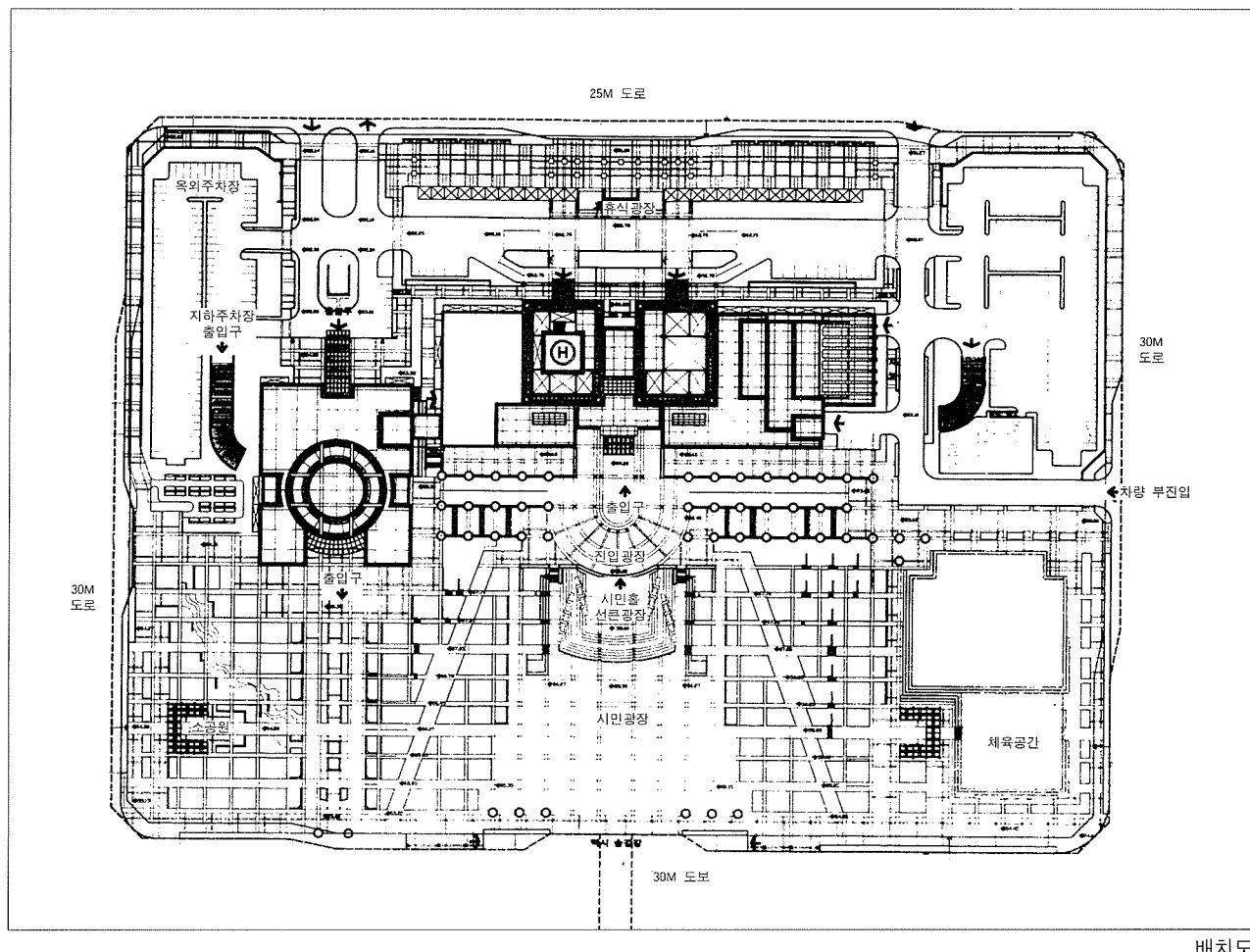
은 조직 단위로 나뉘어진 폭이 좁은 공간 구성으로 답답하고 짜증스런 비능률적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근무자들에게서 친절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사무환경개선 요구 항목 중 가장 높은 '휴식공간' 뿐아니라 '손님접대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없고 주변의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대화가 자주 단절되기까지 한다. 방문자들은 한결같이 방문한 목적달성을 보다는 빠른 시간내에 청사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염두에 두게된다.

민주주의 사회가 태동한 후 대표적인 시청사가 건립되었는데,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지어진 덴마크의 코펜하겐 시청사와 스웨덴 스톡홀름 시청사는 매우 개방적인 배치계획에 시청(City Hall, 시민홀)으로서의 기능이 시민홀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내부공간이 구성되었고, 토속적인 건축재료 사용으로 소박하고 친밀감을 주는 건물들이다. 캐나다의 토론토 시청사는 전면광장이 모두 시민에게 제공하여 사계절 도심 속 공원의 일부로 사용하고 특히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개방하여 쓰여지고 있다. 새로운 건축문화와 발전된 기술을 반영한 미국의 일리노이즈 주청사는 거리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거대한 아트리움(Atrium)이 시민홀 역할을 하며 저층부에 상가와 아케이트 및 행사로 쓰이는 공간이 있으며, 사무공간은 모두 내부의 Open 공간에 면하여 어느

방향에서나 공무원들의 근무모습이 보여지도록 일반인들에게 노출되어 있다. 최근에 정보화 빌딩(Intelligent Bldg) 시스템을 도입한 동경도청사는 우선 의회동과 도청동 사이에 개방된 광장이 펼쳐져 있으며, 도청동의 저층부에는 각종 정보센터와 홍보전시장 등이 시민홀 주변에 배치되어 있고, 사무실은 사무자동화를 위한 공간과 폭 22m의 Open Office로 개방감을 주었으며 휴식공간이 내부에서 가장 밝은 코너에 마련되었다.

새로이 대전직할시 둔산지구에 지어질 대전직할시 신청사는 2만여평의 대지에 건립하는데 우선 담장을 배제하고 남측에 시민광장과 공원, 선큰 광장을 시민에게 개방하여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레크레이션 및 사회활동, 문화행사를 수용하도록 새로운 시민의 장을 마련한다. 특히 도시설계에 의하여 도시 중심축에 위치한 행정용지가 좌우 상업지역 블록들을 물리적으로 단절시켰는데 신청사의 녹지와 휴식시설들이 상업지역을 연결시키는 고리역할을 한다. 차량은 북측에서만 진출입이 가능하며 차량동선과 보행자 동선을 구분하여 안정과 차량소통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도시축의 중심에 위치한 시청사와 대지의 가로축 중심에 위치한 의사당은 도시의 맥락을 따르면서 상징성을 부여하고, 동적인 단순한 기하학적 요소들을 반복 사용하여 지루하지 않은 다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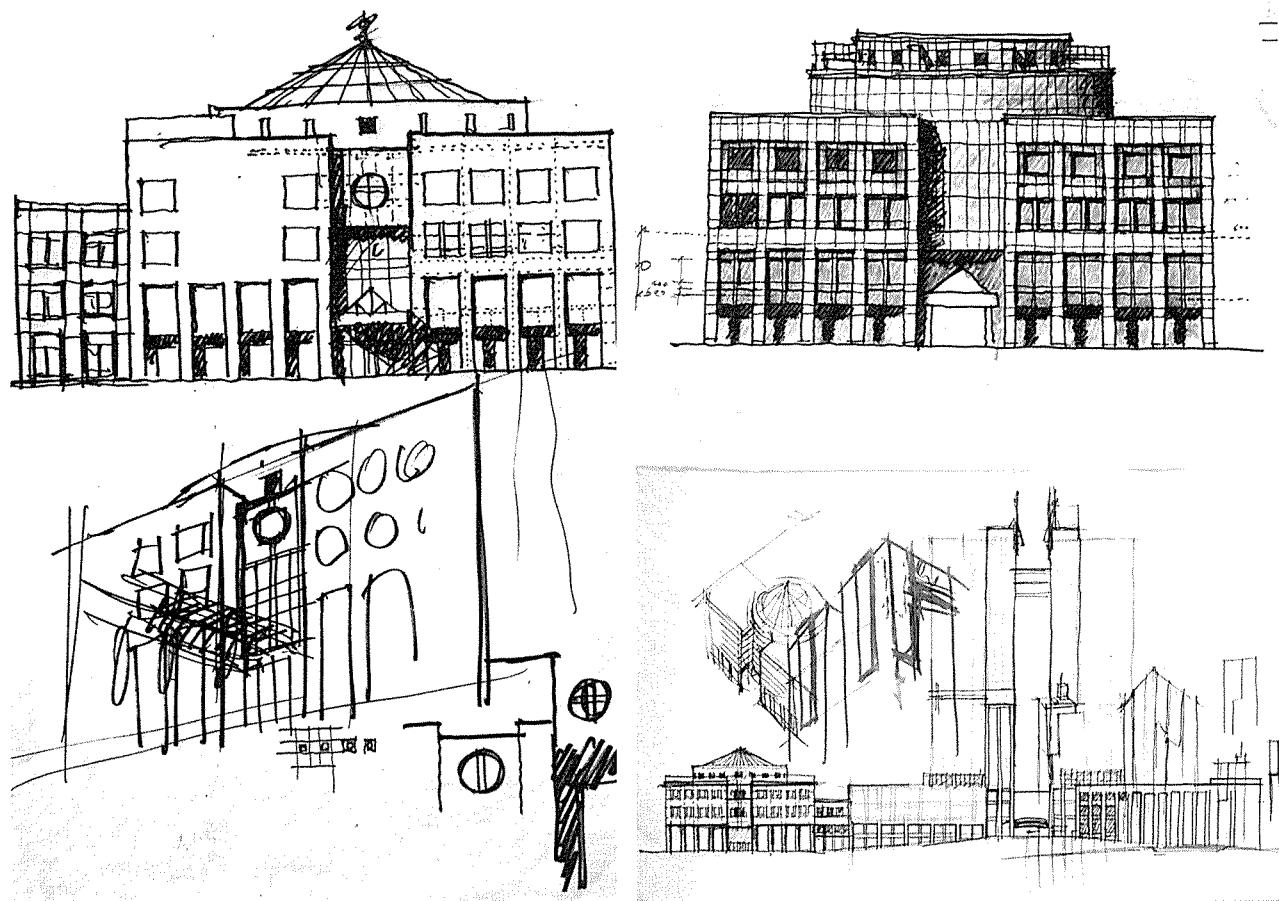


순한 기하학적 요소들을 반복 사용하여 지루하지 않은 다양한 구성을 연출하고자 했다. 건물외관은 주로 외장재로 화강석을 사용하지만 이를 패널화하여 알미늄 멀리언에 끼워넣어 섬세하고 경쾌한 느낌을 주도록 하였으며, 창을 최대한 크게하여 육중함을 감소시키며, 투명한 관청의 이미지를 표출하도록 하였다. 기존 청사들에 있어서 가장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저층부와 진입로비에는 아늑하게 남쪽으로부터 햇빛이 인입되는 넓고 밝은 시민홀이 있으며 휴식 및 후생복지, 문화, 교육, 홍보 및 전시시설들이 시민 및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공간이 있다.

1층에서 4층까지 Open된 아트리움(Atrium)은 수직적인 개방공간으로서 기능적, 시각적으로 유기적인 연속성을 갖도록 하였다. 사무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이라는 측면과 함께 업무강도에 따른 피로도를 휴식을 통해 감소시킴으로서 업무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개념에서 휴식공간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면에서 가장 설계에 역점을 둔 부분은 도시축이지만 Tower 중심부에 빈공간을 두고 밝은 아트리움을 3개 층마다 설치하여 휴게 및 접견장소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상층부에 오르면 홀 주변에 확트인 개방으로 외부의 녹지축과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으며, 내방

자는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무실에 접근하게 된다. 사무공간은 업무처리 효율성 향상과 인간성을 고려하여 넓고 개방된 쾌적한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3면이 외부창에 면하므로 밝은 사무실은 16.8m × 32.4m의 무주공간으로 융통성 있는 Open 공간이 업무성격의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며 동시에 관의 청결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사무지원 시설영역과 회의실 및 휴식공간을 적절히 배치하였다. 근무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고도의 기능을 갖춘 사무공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첨단화 빌딩설계를 실시하여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고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및 빌딩자동화에 만전을 기했다. 관리비 절감과 에너지 절감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공조, 위생 및 전력 조명 제어시스템, 통합방법 및 CCTV 설비, 시민서비스 향상과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통합 OA 시스템, 시청안내 시스템, 광화일 및 통합배선시스템, 다양한 정보교환,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DIGITAL, PBX, 무선 PBX, 화상회의시스템, CATV 네트워크, ARS/VMS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끝으로 설계에 대한 도처의 아쉬움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관행상 또는 구습에 젖어 있는 기존청사의 개념을 과감히 배제하며 새로운 제안이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은 발주처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지원 덕분이었다. 실



스케치 1

무 담당자에서부터 심사, 자문위원회의 긴밀한 협조가 있었으며, 작가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건축작가의 작품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객관적인 의견 제시로 설계의 질을 높였고 특히 염홍철 시장의 미래지향적인 발상과 전문가의 의견을 중시하는 진보적인 사고로 좀처럼 경험할 수 없었던 추진팀 간의 하모니를 이루었다.

이제 착공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완벽한 설계해석과 기술적인 뒷받침으로 건설되며, 더불어 최근에 시행상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감리부문에서도 수준 높은 기술자가 투입된 철저한 설계 감리 및 시공 감리로 건축작가의 의도가 현실로 다가올 때 시민을 위한 진정한 공공업무 공간이 창조될 것이다.

대지위치 / 대전직할시 서구 둔산동 신시가지

지역, 지구 / 중심상업지역

대지면적 / 69,000 m²

건축면적 / 8,571 m²

연면적 / 71,864 m² (시본청 60,024, 시의회 11,840)

건폐율 / 124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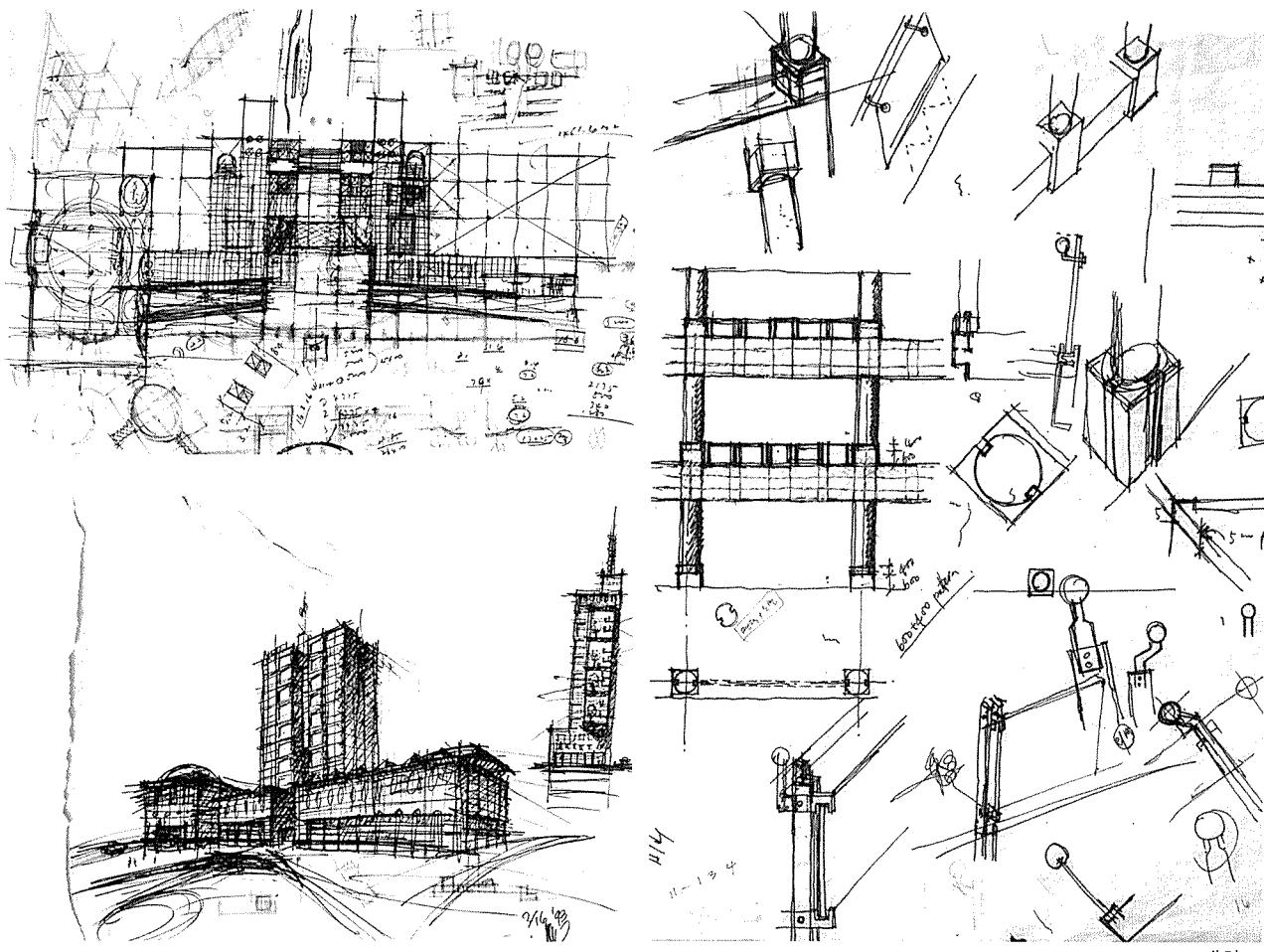
용적률 / 7908 %

구조 / 철골조+ 철근콘크리트

규모 / 지하2층, 지상21층 (시의회: 지하2층, 지상4층)

외부마감 / 화강석 PC블이기

주차대수 / 744대(옥내 380대, 옥외 364대)



스케치 2